

『東史綱目』의 著述背景

—南人の 참여와 관련하여—

姜 世 求

I. 머리말

II. 星湖의 著述勸告

III. 星湖의 基本方向 提示

IV. 星湖門人の 參與

V. 맺음말

I. 머리말

順菴 安鼎福의 年譜에 따르면 『東史綱目』은 1756~59년 사이에 저술되었다. 현재도 安鼎福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東史綱目』 저술이 과연 그의 독자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일까. 더불어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졌을까.

당시 南人學者들은 『東史綱目』이 星湖 李瀾의 부탁으로 順菴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¹⁾ 더구나 順菴은 당시 星湖門人の 한 사람으로 星湖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학자였다. 그렇다면 『東史綱目』의 저술은 星湖와 관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星湖集』과 『順菴集』에 보이는 많은 서한에 따르면 星湖 이외의 여러 門人과도 『東史綱目』 저술에 대한 問答이 오가고 있었다. 『順菴集』에 있는 「東史問答」이 그 한 예이다. 따라서 『東史綱目』의 저술에는 星湖

1) 《星湖全書》, 『星湖集』, 附錄, 卷 1, 家狀, 從子秉休(麗江出版社, 1984)

同上, 卷 1 墓碣銘, 蔡濟恭

同上, 卷 2, 謚狀, 許傳

門人을 중심으로 한 近畿南人의 참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東史綱目』이 順菴 한사람만의 저술로 보기에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近畿南人의 영수였던 星湖가 『東史綱目』 저술에 어떻게 간여하였던가, 또한 그의 門人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었던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로써 『東史綱目』이 18세기 南人의 역사 인식을 대변하는 史書였음을 고찰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星湖의 著述勸告

順菴은 어떻게 하여 『東史綱目』을 쓰게 되었을까. 星湖의 조카이자 제자였던 貞山 李秉休는,

A-① (上略) 又嘗病東國史書 如東國通鑑・麗史提綱之類 鹵莽紕繆 思欲下手 而未果 見門人安鼎福有此意 寄書勸之 …(中略) 卒成東史一書 今其書中規模義例 蓋出於先生所定(下略) (『星湖集』, 附錄, 卷 1 家狀 從子秉休)

라 하여, 星湖가 門人 安鼎福에게 東史를 쓰도록 권유하였다 하고, 樊巖 蔡濟恭(1720~1799)도 星湖의 墓碣銘에,

A-② (上略) 患東史疎缺 則托門人安鼎福 授以義例 卒成信史一帙 (『星湖集』, 附錄, 卷 1 墓碣銘, 蔡濟恭)

이라 하였다. 즉, 門人 安鼎福에게 東史의 저술을 부탁하고 義例를 가르쳤다고 밝히고 있다. 順菴의 孫弟子라 할 수 있는 許傳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²⁾

2) 同上

「病東人疎於本國事 乃考文獻 證其譌謬 正其義例 以授門人安鼎福 卒成東史綱目一部」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東史綱目』이 順菴에 의해 저술되었지만 星湖의 門人들은 星湖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겠다.

한편 順菴도,

A-③ (上略) 夫東史之編摩指導 無有其餘蘊 疆場之錯亂而未定者 義理之隱晦而未暢者 靡不奉承其成訓 (『順菴集』 12, 祭星湖先生文 癸未(1763))

이라 하여, 『東史綱目』이 星湖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³⁾

그렇다면 星湖는 어떤 까닭에서 順菴에게 새로운 역사서 저술을 권유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그 스스로 東史를 쓸 수는 없었던가.

『星湖僊說』 經史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도 많은 歷史考證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星湖僊說』은 그 말년에 族子에 의해 謄傳된 정도였고⁴⁾ 1762년, 즉 그가 별세하기 수 개월 전야 順菴에 의해 『星湖僊說類選』이 정리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經史門은 『星湖僊說』 전체 분량으로 보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星湖가 심혈을 기울여 서술한 부분이기도 하다. 전체 3037항 중 1048항이 經史門으로 약 35%를 차지한다.⁵⁾ 특히 古代史 분야에 대한 그의 연구는 順菴에게 많은

3) 또한 『星湖集』 15, 書, 答安百順問目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曾聞先生昔年留意于東史未審 綱要已定否 凡述史皆有託(不略)」

4) 『星湖集』 16, 書, 答安百順, 辛巳 「(上略) 自四十年前 隨見志疑 揮筆忙寫 不復看閱 近因族子爲之謄傳」

5) 『星湖僊說』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編 目	卷 數	項 數	構成比(%)
① 天 地 門	1~3 (3卷)	223	7
② 萬 物 門	4~6 (〃)	370	12
③ 人 事 門	7~17 (11卷)	1018	34
④ 經 史 門	8~27 (10卷)	1048	35
⑤ 詩 文 門	28~30 (3卷)	378	12
計	30	3037	100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⁶⁾

이 經史門에서 星湖는 作史問題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종래 우리 나라 역사서의 筆法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⁷⁾ 그런데도 그는 달리 역사서를 저술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고증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여기에서 南人學者인 星湖의 歷史認識과 西人 俞樾(1607~1664)의 『麗史提綱』에 대한 그의 비판을 살펴 봄으로서 새로운 역사서를 필요로 했던 배경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는 歷史의 목적을,

A-④ 史者 所以勸善懲惡 著其善而不諱其惡 前史之公也(『星湖僿說』 19, 經史門, 古史善惡)

라 하여, 勸善懲惡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 善을 나타내고 惡을 숨기지 않는 것이 前史에 대한 公正함이라 하였다. 그는 종래의 史書가 주로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成敗에만 집착하여 善惡을 판단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즉,

A-⑤ 史者 作於成敗已定之後 隨其成與敗 而粧點就之 若固然然者 且善多諱過惡必棄長故 愚智之判 善惡之報 疑若有可徵殊不知(下略)(『星湖僿說』 20, 經史門 讀史料成敗)

라 하였듯이, 역사의 기록은 모두 사건의 成敗가 결정된 뒤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 成敗에 따라 善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허물이 감추어지고 惡은 그 반대로 본래의 장점이 감추어져 허물이 더욱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A-⑥ 作史者 但以成敗 論其得失 用此垂後 不幾於天地之晦塞耶 可異也(同上, 趙位寵)

라 하여, 史家는 사건의 成敗만 가지고 그의 得失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6) 韓永愚, 「李瀾의 史論과 韓國史理解」, (韓國學報 46, 1987) 참조.

7) 『星湖僿說』 22, 經史門, 東史多諱, 『星湖集』 15, 書, 答安百順 및 別紙

하였다.

이와 같은 星湖의 勸善懲惡에 입각한 反成敗論의 歷史觀은 철저한 春秋 筆法을 요구하게 되었다.

A-⑦ 春秋之筆 斧鉞也 匹夫而假王者之權 豈有他哉 既不能命有德而討有罪 則將善益怠 而惡益肆矣 (同上, 24, 經史門 孫復春秋)

라 하였듯이, 德이 있는 자를 命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자를 벌하지 못한 다면 장차 善한 자는 더욱 게으르게 되고 惡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도 史家가 역사를 쓰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A-⑧ 作史 豈不難乎 如韓退之所言 不過畏禍耳 然秉直特立者 猶可以免失此矣 至古今 曖昧疑似者 將何以斷之 …(中略) 又若眞有其惡 而迹偶不顯 得適於鉄鉞亦大不可也 …(中略) 余故曰 作史之難 不在畏禍耳(同上, 25, 經史門 作史之難)

라 하여, 直筆로 인한 被禍를 우려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惡이 날카로운 필봉을 벗어나게 되면 그 또한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東國通鑑』과 『麗史提綱』으로 이어졌다. 『東國通鑑』은 朝鮮前期 勳舊勢力인 徐居正을 대표로 하여 편찬된 官撰史書이고, 『麗史提綱』은 沙溪 金長生의 門人인 西人派 俞榮가 저술한 史書이라. 특히 『麗史提綱』은 편찬된 이후 官撰史書를 방불할 만큼 권위를 지니고 널리 읽혀졌다고 한다.⁸⁾

더불어 西人의 學問에 대한 星湖의 평가 또한 매우 비판적이었다. 1746년 그를 첫 방문한 順菴에게,

A-⑨ (上略) 曰西人學問 專以謹守規矩四字 爲涉世 無病敗之斷案故 知識終甚鹵莽 爲可恨也(『順菴集』 16, 雜著, 函丈錄)

8) 韓永愚, 「17세기 중엽 西人의 歷史敍述—俞榮의 麗史提綱—」, 『佛敎와 諸科學』, (東國大學校開校 80주년 기념논총, 1987), p. 1175

라 했듯이, 西人의 학문은 전적으로 ‘勤守規矩’ 하여 출세를 위해서는 病敗를 판단치 못하기 때문에 知識에 문제가 많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당시 실권을 장악한 西人에 대한 학문적 경쟁을 의식하여 말한 것이라 보아 좋지 않을까 한다. 李秉休가 밝혔듯이, 星湖가 『東國通鑑』과 『麗史提綱』을 ‘鹵莽紕繆’ 하다 하여 새로운 역사서의 필요성을 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⁹⁾

『東國通鑑』과 『麗史提綱』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星湖는 周勸과 趙位寵의 舉兵에 대한 평가를 들고 있다.¹⁰⁾

周勸은 馬韓이 百濟의 침입을 받아 망하자 牛谷城에 웅거하여 부흥운동을 꾀하다 실패하고 자결한 馬韓의 遺將이었다. 그런데 『東國通鑑』에는 周勸을 반역죄인이 받는 형벌로 다루어 기록하였던 것이다.¹¹⁾ 이에 星湖는,

A-⑩ 馬韓之亡 惟周勸據牛谷城 圖復舊業 爲濟所殺 東史以叛書之 失史家斧鉞 今宜立祠於金馬之墟 以周勸配食 用揭君臣之大義 如此庶幾得之(『星湖僊說』 25, 經史門 前代君臣祠)

라 하여, 周勸의 忠節을 찬양하고 오히려 周勸을 배향하여 君臣의 大義를 밝히려 한다고 하였다. 한편, 趙位寵의 舉兵에 대해서는,

A-⑪ 今東國通鑑 書以叛賊之例 於義恐大謬矣 春秋之義 弑君之賊 人得以誅之 君弑而賊不討 其可緩耶 …(中略) 若使其事遂成 當時國論將以爲如何 …(中略) 位寵之敗 運鏃也 非師曲也 君臣大義 無所逃於天地之間 不計強弱 彰其義聲 卽臣節之致意也(『星湖僊說』 20, 經史門 趙位寵)

라 한 것 처럼, 『東國通鑑』에서 그를 역적으로 쓴 것은 의리로 보아 크게

9) 시료 A-① 참조.

10) 이 두사람의 舉兵에 대한 평가는 星湖가 兩書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예로 통하고 있다.

11) 『東國通鑑』 1, 天鳳 3年. 「多十月 馬韓舊將周勸 起兵 據百濟牛谷城 王帥兵五千討之 周勸自經 腰斬其尸 并殺妻子」

그릇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임금을 시해한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것이 잘못이 될 수 없다 하면서, 반대로 거사가 성공했다라면 당시의 국론이 어떠했을까 반문하고 있다. 『麗史提綱』 역시 趙位寵의 擧兵을 반역으로 다루었다.¹²⁾

이처럼 星湖가 周勸과 趙位寵의 擧兵을 臣下의 忠節로 포양한 반면, 『東國通鑑』과 『麗史提綱』에서는 반역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星湖의 臣下의 忠節에 대한 평가가 反成敗論的 歷史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麗史提綱』의 凡例와 『東史綱目』의 凡例를 비교해 보아도 잘 구별된다.¹³⁾ 君主의 권위와 臣下의 절의에 대한 평가에서 『麗史提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 또한 당시 실권을 쥐고 정권을 농단하던 西人을 표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닐까¹⁴⁾ 그가 말년에 門人들에게 단결을 촉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¹⁵⁾

따라서 西人 저술의 『麗史提綱』에 대응할 수 있는 南人의 역사서를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판단된다. 『麗史提綱』출현이후 林象德(1683~1719)의 『東史會綱』이 보급되었으나 역시 少論의 역사서로써 南人의 구미에는 맞지 않아 筆法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었다.¹⁶⁾ 또한 그 이전에 嶺南 南人 洪汝河(1621~1678)가 쓴 『彙纂麗史』와 『東國通鑑提綱』이 있었으나 星湖가 생존할 당시에는 이 책들이 간행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¹⁷⁾ 실

12) 『麗史提綱』 10, 明宗紀. 4年, 3月「秋九月 西京留守趙位寵 起兵於西京 遣平章事尹麟瞻 擊之(下略)」

13) 『東史綱目』 凡例의 本例에는 忠節과 篡逆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으나 『麗史提綱』의 凡例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14) 『星湖僊說』에서 鄭經世, 柳成龍, 金誠一 등에 대한 그의 변호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星湖僊說』 23, 經史門, 小人勿用 및 忌功, 25, 經史門 平秀吉)

15) 『星湖僊集』 7, 書, 答尹幼章「(上略) 所望於良友者 左提右挈 相與磨礪 爲餘生之自樂」

16) 『東史綱目』 自序, 「提綱會綱 筆法或乖」, 『順菴集』 13, 雜著, 橡軒隨筆, 下(驪江出版社, 1984) 「本朝俞衆撰麗史提綱二十三卷 本朝林象德撰東史會綱二十四卷 此二書稍簡整 而不無訛謬」

제로 『麗史提綱』에 필적할만한 南人의 역사서는 없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¹⁸⁾

그런데 星湖는 왜 스스로 저술에 손대지 못하였을까. 그는 作史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¹⁹⁾ 역사를 쓰는 사람은 史才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史才란,

A-⑫ 作史 以直筆爲重 於此尤著左氏之爲史才也(同上, 24, 經史門 廣不臘左丘明)

라 하였듯이, 直筆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는 스스로 史才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 이에 대해 그가 분명히 밝힌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作史에 대한 어려움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또한 부분적인 고증에만 그쳤다는 점 등에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니까 그는 南人 역사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집필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星湖는 그를 대신하여 南人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사를 쓸 史才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보아 좋지 않을까. 그의 주변에는 順菴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尹東奎 형제, 愼後聘, 趙守誼, 南夏行, 黃運大, 李秉休 등 많은 門人들이 經史에 관심을 갖고 잦은 출입을 하였다. 특히 尹東奎와 李秉休는 역사에 해박하여 星湖와 順菴의 역사 지식에 큰 기여를 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經學과 禮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星湖로서는 이들에게 역사 저술을 기대할 형편이 못되었다.

이러한 때에 1746년 10월 順菴이 星湖를 첫 방문하였다. 이때 星湖의 나이 66세로서 病弱해 있었으며 더우기 가난으로 고난을 받던 때였다.²⁰⁾

17) 韓永愚, (17세기 중엽 嶺南南人의 歷史敘述 一洪汝河의 彙纂麗史와 東國通鑑提綱一), 『邊太燮博士 회갑기념사학논총』(1986)이 참조된다.

18) 『東史綱目』에 《彙纂麗史》가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安鼎福은 이 책을 필사하여 본 듯하다. 1784년 安鼎福은 洪錫胤의 부탁으로 『彙纂麗史』의 교정을 맡아 본 일이 있다. (《順菴集》9, 書, 與洪生錫胤書, 甲辰)

19) 『星湖僿說』25, 經史門, 作史之亂. 《星湖續集》9, 書, 答安百順.

이후 順菴은 4차에 걸쳐 星湖를 방문하고 자주 서한을 교환하였다. 이 즈음 어느시기엔가 星湖는 順菴에게 역사 저술을 부탁한 것이 아닐까 한다. 星湖가 항상 그 자신의 老弱과 病苦를 걱정한 것처럼 실제 어떤 저술에도 손댈 수 없는 기간이었다.

順菴도 1749년 11월 萬寧殿 參奉을 제수받은 이후, 51년 義盈庫 奉事 52년 靖陵直長, 53년 厚暑別提, 54년 2월 司憲府 監察 등의 벼슬길에 있다가 그 해 6월 부친이 별세하여 낙향할 때까지는 사실상 『東史綱目』 집필의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²¹⁾ 그가 정작 史書 읽기에 몰두하였던 때는 父親이 별세한 후였다.²²⁾

順菴이 星湖에게 『東史綱目』 저술의 뜻을 밝혔던 때는 1754년이다.²³⁾ 그렇다면 星湖는 1754년 이전에 順菴에게 저술을 부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順菴이 저술의 뜻을 밝히기까지는 星湖가 저술을 권고한 뒤 얼마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綱目的 筆法과 凡例에 관한 兩人的 問答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부분 順菴의 질문에 星湖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順菴은 經書와 史書를 독서하고,²⁴⁾ 의심이 있는 문제는 星湖나 그의 門人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면서 星湖로부터 학문적 인정을 받았다.

일찍부터 綱目體 歷史敍述에 관심이 많던 順菴의 作史知識은 이때 더욱 심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²⁵⁾ 星湖도 順菴의 학문 태도에 감동하여 매

20) 『順菴集』 16, 雜著, 函丈錄.

21) 이 기간에는 1753년에 『廣州志』와 星湖의 권고에 따라 『李子粹語』의 편찬에 참가한 바 있다.

22) 『順菴集』 19, 傳, 靈長山客傳, 甲戌, 「(上略) 是年六月 遭外艱歸 守廬于靈長舊宅 疾作而有終焉之志 杜門息交 不貳而竣之時 年四十三矣 客平日纂諸葛亮陶淵明之爲人 而陳壽之志晉宋之傳詳略相仍 遺闕實多 遂旁採傳記 而爲二傳 常常諷讀(下略)」

23) 『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甲戌, 「伏乞命教 若有人更編東史 自上古至麗末 合成一編 依綱目之例 名之曰東史綱目 使一方之文獻有傳似好矣」

24) 『順菴集』 2, 書, 答上星湖先生書, 辛未, 「(上略) 遂取古經史而讀之 口誦手抄」

25) 同上 4, 書, 與鄭求年壽延書, 丙寅

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²⁶⁾

그 사이 順菴은 『海東文獻通考』와 『海東事文類聚』를 저술한 바 있다.²⁷⁾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여러 문헌의 자료집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혹 뒤에 『東史綱目』을 쓰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간다.

이와 같이 수년동안 綱目體 歷史筆法을 집중적으로 익히면서 그 지식이 쌓여지자, 대략 1752~3년 경에 星湖는 順菴에게 東史를 쓰도록 권유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것은 1753년 順菴이 星湖에게 보낸 서한에,

A-⑬ (上略) 侍生平日於綱目之書講之 稍熟於他書 而筆法之可疑處甚多(下略)
(『順菴集』 2, 書, 上星湖先生書, 癸酉(1753))

라 있듯이, 이때쯤에는 이미 順菴도 綱目體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더우기 『李子粹語』도 이때 완성되었고 星湖는 이미 70이 넘은 고령과 병약으로 집필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저술은 順菴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星湖는 順菴이 史才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라 하겠다. 그는 『麗史提綱』이 高麗의 斷代史인 것에 대응하여 檀箕以後 通史를 쓰도록 권유하였다.²⁸⁾

1754년 『東史綱目』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힌 順菴은 집필에 전념하였고 星湖는 저술에 깊게 관여하게 되었다.²⁹⁾

26) 『星湖集』 14, 書, 答安百順, 壬申, 「惟百順能仕學 兼教進修不已 大爲朋友之望」

27) 『順菴集』 27, 遺事. 李萬頃醇叟遺事, 壬申 「余嘗謂君曰 東人文獻幽莽 使無以考徵 取其典實者 爲海東文獻通考 以其餘爲海東事文類聚 使華實并舉巨細畢收 則誠好矣」

28) 『星湖集』 15, 書, 答安百順問目.

29) 이상과 같은 『東史綱目』 저술을 둘러싼 星湖와 順菴의 관계는 어쩌면 《綱目》 저술 초기의 朱子와 趙師淵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 星湖가, 「趙訥齋師淵 字幾道 學於朱門者也 今於往復八書 其屬托之意 無可疑者 而凡例抄在趙家得此而後 本末始完 蓋其目中去取 即趙公承師說而爲之者也 然是時 朱子衰疾已極 禮書才畢 無力更及他書」(『星湖集』 27, 經史門, 綱目)라 하여, 『綱目』은 朱子의 부탁으로 趙師淵이 썼다하고, 凡例는 朱子의 뜻이 크게 받

Ⅲ. 星湖의 基本方向 提示

그러면 星湖는 『東史綱目』의 집필을 권유한 후 어떻게 간여하였던가. 『星湖集』과 『順菴集』에 수록된 두 사람간의 서신 교환만도 73 통에 이른다. 그중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36 통으로 절반이나 되고 1754~59년 草稿가 나올 때까지는 거의 모두 집필에 관련된 問答이다. 이는 星湖가 『東史綱目』 저술에 얼마나 관심이 컸던가를 말해 준다 하겠다.

이 기간에 星湖와 順菴은 어떤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을까. 順菴이 1756년 星湖에게 보낸 서한에,

B-① 東史凡例地誌可疑者 略爲論辨 而仰稟(『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丙子)

이라 있고, 다시 그 이듬해인 1757년 서한에,

B-② 東史凡例大義 則前已稟定 而有所補(同上, 丁丑)

라 있듯이, 저술 초기에는 『東史綱目』의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凡例에 대해 星湖가 깊이 간여하였던 것 같다. 아마도 星湖가 그 대강을 제시하고 順菴이 초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凡例가 저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星湖로써도 방관할 수 없었고 順菴 또한 星湖의 가르침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들은 綱目體筆法의 모범이었던 朱子 『綱目』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를테면 星湖가,

B-③ 綱目凡例 不見要領(『星湖集』 15, 書, 答安百順別紙)

영피었던 것으로 보고 있었다. 朱子도 당시 명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朱子의 이러한 선례를 본보기로 삼아 그도 『東史綱目』 저술을 順菴에게 부탁하려 하였던 것은 아닐까. 그가 『東史綱目』 凡例에 깊이 간여하였던 점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볼까 한다.

이라 하였듯이, 『綱目』의 凡例가 요령을 잃었다 하고, 順菴도,

B-④ 綱目與凡例 相違者多 而自唐以下尤甚 …(中略) 故待生常以爲欲讀綱目 當依凡例 凡例相違者逐綱而註之 似不失其本旨 尹丈亦言如此 伏未知如何 (『順菴集』 2, 書, 上星湖先生書, 甲戌)

라 하여, 綱目과 凡例가 서로 상위함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星湖에게 가르침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東史綱目』 집필 초기에 綱目體書法 전반에 걸쳐 問答을 하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해 나갔던 것이다.³⁰⁾ 이 凡例야말로 『東史綱目』 저술 과정에서 星湖가 順菴에게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東史綱目』 凡例는 本例와 雜例로 짜여져 있다. 本例는 統系에서 災祥까지 18 節로 이루어져 있고 雜例는 本例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것을 대상으로 한 11 條로 구성되어 있다. 이 雜例에는 考證方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凡例에 星湖의 어떤 의견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가. 兩人間에 오간 서한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星湖의 正統論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檀君→箕子→馬韓→(三國無統)→新羅文武王 9 年→高麗太祖 19 年의 統系가 그것이다.

檀君을 正統의 출발로 세운 星湖는 順菴에게,

B-⑤ 檀君者 要是與唐虞並世 舜是東夷 則均爲太平之人矣(『星湖集』 15, 書, 答安百順, 丙子)

라 하여, 檀君을 堯舜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보았다. 그는 年代記銀에 난 점이 많다는 順菴의 의견에 「檀箕何可不表出耶」라 반문하면서 철저한 연구와 고증을 추구하기로 하였다.³¹⁾ 그러면서도 檀君說話의 허황함에 현혹

30) 이 틀레면 『順菴集』 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 乙亥 및 丙子年과, 『星湖集』 15, 書, 答安百順, 乙亥 및 別紙答安百順問目에 잘 나타나 있다.

31) 『星湖集』 15, 書, 答委百順問目.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로 하였다.³²⁾ 이러한 星湖의 견해는 順菴에게 그대로 이어져 「考異」「怪說辨證」에 많은 考證을 남기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馬韓을 正統으로 한 것은 箕準이 비록 衛滿에 쫓겨 南遷하였으나 箕子의 제사를 이었기 때문이라 하였고, 三國을 分註하여 無統으로 본 것은 溫祚 27년 馬韓이 멸망한 후 三國이 並立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高麗 太祖 19년을 正統으로 본 것은 이 해가 甄萱의 後百濟가 망한 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³⁾ 더불어 太祖王建은 弓裔의 무리와 같이 “群盜之類”이기 때문에 僭國의 예에 속한다 하여 즉위후 18년간은 正統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³⁴⁾

이상의 正統論은 洪萬宗의 『東國歷代總目』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東國歷代總目』의 凡例나 編次를 보면 星湖의 正統論과 크게 다를 바 없다.³⁵⁾ 다만 洪萬宗이 新羅를 正統으로 보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32) 同上, 答安百順, 丙子 및 別紙

33) 註 31) 「高麗 則太祖十九年甄萱亡後 爲正統」 「亦然」 그러나, 935년 11월 敬順王의 투항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듬해 936년(太祖 9年) 甄萱의 後百濟가 망한 것과 함께 高麗를 正統으로 본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런지 모르겠다. 즉, 敬順王이 투항한 935년 11월부터 甄萱이 투항할 때까지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생긴다. 星湖의 설명대로라면 後百濟의 甄萱은 반적이기 때문에 935년 11월 경순왕의 투항때부터 正統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닐까.

34) 『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 丙子, 「(上略) 弓裔僭亂 建爲其徒 則是亦群盜之類也」

35) 그런데 星湖는, 「近世有洪氏總目書者 以新羅爲正統 不見其妥當」(《星湖集》 15, 書, 答安百順問目)이라 하여, 洪萬宗이 新羅를 正統으로 삼은 것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東國歷代總目』의 凡例에는, 「三國開創 差有先後 而位均體敵 不能主一 故依綱目 無主正統例 皆低一字書之 至新羅文武王統三爲一 故始以正統書之」라 기록되어 있다. 즉, 三國時代를 無統으로 처리한다 하였고 本文에도 無統으로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星湖가 『東國代總目』을 잘못보았던가 뒤에 그 내용이 수정되었던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韓永愚 教授도 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韓永愚, 「李讓의 史論과 韓國史理論」, p. 81) 그러나 『東國歷代總目』이 1705년 저술이고, 順菴의 질의에 대한 答書를 쓴 것이 1755년이라 볼 때 『東國歷代總目』을 뒤에 누군가가 改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현재의 『東國歷代總目』 凡例와 本文 기록대로라면 星湖로서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星湖가 오인할 정도로 부분적인 기록이 아니다.

것을 제외하고 文武王 9년과 太祖 19년과 같은 紀年을 생략했을 따름이다. 이러한 星湖의 正統論은 凡例 제 1 절 統系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둘째, 地理沿革이 크게 강조되었다. 順菴 역시 『東史綱目』을 저술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낀 것 중의 하나가 地理問題였다.

順菴이 星湖에게 보낸 서한에,

B-⑥ 作史者 必先定疆域 而東史地誌 專無可據(『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上 星湖先生書, 乙亥)

라 있듯이, 역사를 쓰는 자는 반드시 먼저 疆域을 정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地理誌에는 근거할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어,

B-⑦ 方著東國地理疑辨 欲以就正 當俟後日仰冀耳(同上)

라 하였듯이, 後日 東國地理를 써서 올리겠다는 데에서도 그가 얼마나 地理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星湖가 順菴에게 강조하여 조인한 地理沿革은 遼東地方을 중심으로 4郡 2部の 위치, 高句麗疆域과 주요한 城, 주변 小國의 위치, 그리고 山江의 연혁에 관한 것이었다.³⁶⁾ 시기적으로 주로 古代國家의 강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漢水以北에 관심을 두었다.

星湖는 遼東地方을,

B-⑧ 朝鮮之地 始并有遼瀋 必與諸溥不遠 檀君之從化 無疑矣(『星湖僊說類選』¹ 下, 檀箕疆域)

라 하여, 이미 檀君時代부터 朝鮮의 疆域이었다고 하였다. 遼東의 沿革에 대한 順菴의 질문에,

B-⑨ 所謂箕子提封 其詳不可考 後失西界數千里於燕 則遼瀋即其域內 三國之末 新羅不能統制 使渤海坐大 其地東傳于海 後爲契丹所滅 則此東邦失遼之始末也 麗太祖絕遼使 將圖復舊疆 而遼卒不遂志(『星湖集』 15, 書, 答安百順, 丙子)

36) 『星湖集』 15, 書, 答安百順問目. 同上, 答安百順, 丙子, 別紙.

라 답하면서, 遼東은 箕子, 高句麗, 渤海의 강역이었다 하고, 失地後 두 번의 수복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첫번째는 三國을 통일한 新羅의 국력이 미약하여 기회를 놓쳤고, 두번째는 高麗 太祖가 회복 정책을 폈으나 갑자기 他界함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遼東에 대한 星湖의 강한 疆域意識은 역시 『東史綱目』 凡例에 그대로 반영되고,³⁷⁾ 順菴에 의해 「地理考」에서 더욱 구체적인 고증을 남기게 되었다.

셋째, 忠節에 대한 褒揚을 강조하였다. 이는 星湖가 가장 중시하는 義例이면서 실제 凡例에서 크게 부각되어 있다. 그가 順菴에게 보내는 서한에,

B-⑩ 自古 國士殉節 湮沒無稱 又何限令人三復咨歎(『星湖續集』 9, 書, 答安百順 別紙)

이라 있듯이, 우리 역사서에는 節義를 지키다가 殉節한 인물이 인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三國時代는 물론이고 특히 高麗時代의 節義人物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면 趙位寵의 擧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³⁸⁾ 星湖는,

B-⑪ (上略) 如馬韓周勤·麗時趙位寵 恐不在反逆之科 此類宜在商量(下略)(『星湖集』 15, 書, 答安百順)

이라 하였다. 즉, 馬韓將 周勤과 高麗武人執權期 趙位寵의 擧兵은 反逆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擧兵한 결과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 동기는 忠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이들이 기존 史書에서는 찬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星湖는 忠臣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

37) 『東史綱目』, 凡例, 統系.

38) 『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 乙亥. 「(上略) 擒趙位寵斬之 如此則起兵討賊之義 及徇私爲身之罪并擧矣 伏乞指教」

39)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2, 星湖의 著述勸告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는 麗末에 不事二君으로 은둔한 節義의 대표적인 인물로 冶隱 吉再를 들었다.⁴⁰⁾ 그 밖에 양인간에는 鄭夢周, 李穡, 李崇仁, 金澍, 李奎報 등에 대한 節義의 평가가 교환되고 있었다. 節義의 유무로 賢臣인가 아닌가가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星湖의 이같은 忠節의 강조는 凡例 '人事'에 잘 반영되고 本文에 보이는 順菴의 史論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凡例의 崩葬, 纂弒, 祭祀, 封拜, 人事에 규정된 筆法도 거의 星湖의 諮問으로 쓰여졌다. 대부분 順菴의 질의에 星湖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星湖僊說』도 크게 참고되고 있었다.⁴¹⁾

이상에서 살펴 본 凡例의 대강은 1758년 順菴이 李秉休와 가진 〈東史問答〉에,

B-⑫ 東史非敢擔當…(中略) 況僕瀚劣寡聞 將何以發揮耶 其大意 則尊正統 崇節義 謹筆例(下略) (『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與李貞山書, 戊寅)

라 있듯이, 『東史綱目』 저술의 大意가 '尊正統 崇節義 謹筆例'라 밝힌 것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順菴이 밝히고 있는 正統, 節義, 筆例는 모두 星湖가 저술의 기본 방향에서 제시한 것 들이다. 따라서 星湖의 史論이 順菴의 저술에 크게 작용되었으리라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東史綱目』 저술의 기본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順菴은 새로운 考證方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凡例의 雜例에 밝혀 그 대강 목적을 제시한 것이 바로 「考異」, 「怪說辨證」, 「雜論」, 「地理考」이다. 이들 네편은 지금까지 역사 고증 방법에서 볼 수 없었던 司馬光의 『資治通鑑考異』를 모방·수용하였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물론 이를 쓰는 과정에서도 星湖의 자문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⁴²⁾

40) 『星湖續集』 9, 書, 答安百順, 「冶隱 召至京辭官 其義烈 可謂柱天地貫日月矣」

41) 『星湖集』 15, 書, 答安百順, 別紙, 「僊說中 有所記揭 而送之 覽而去取焉」

42) 이에 대하여는 그의 역사고증방법과 관련하여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이처럼 『東史綱目』의 저술은 星湖의 凡例를 통한 기본 방향 제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 초고가 완성될 때까지 星湖는 順菴의 집필에 깊게 간여하였다. 1759년 順菴이 초고를 제시하였을 때 星湖는 칭찬을 하면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을 지적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⁴³⁾ 그 뒤로 별세할 때까지 星湖는 再考에 참여하면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Ⅳ. 星湖門人의 參與

『東史綱目』은 星湖의 권유와 자문으로 順菴이 집필하였다. 그러나 그의 門人들의 협조 또한 적지 않았음을 찾아 볼 수 있다.

順菴이 1775년 李秉休에게 쓴 서한에,

C-① 鄙撰東史 既已受教于門 略費多少心力 成書 幾二十年(下略) (『順菴集』) 4
書, 答李景協書, 乙未)

이라 있듯이, 『東史綱目』이 師門의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면 星湖門人들은 어떻게 저술에 협조하였던가. 이에 가장 관심을 쏟은 이는 말할 것도 없이 星湖였다. 그것은 이 大業이 順菴이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南人 전체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저술이 시작되면서 자신은 물론 그의 門人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尹東奎와 李秉休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順菴이 星湖를 첫 방문하였을 때 星湖가 그들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여 소개한 사람들이기도 하다.⁴⁴⁾ 특히 尹東奎는 星湖가 별세한 후 李秉休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고 後稿로 미룬다.

43) 『星湖集』 15, 書, 答安百順. 己卯.

44) 『順菴集』 16, 雜著, 函丈錄, 「舍侄秉休學問明透 少輩無有過之者 可歎人才之無多也 又曰有尹東奎者 居仁川 見解明悟 不易得之人也」, 한편 그의 獨子였던

와 함께 星湖門人의 중심 인물이 되어 近畿南人을 대표한 학자이다. 順菴도,

C-②(上略) 同門後學安鼎福 …(中略) 昔丙寅之歲 鼎福始謁星湖先生 先生語當世學問之士 語公不休因誦 …(中略) 嗚呼 先生之道 公得其宗 而家學淵源 至景協而盛矣 (『順菴集』 20, 祭邵南尹丈東奎 癸巳)

라 하여, 星湖의 道를 尹東奎가 이어받고 李秉休에 이르러 盛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順菴은 同門後學으로서 이들과 학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 밖에 『東史綱目』 초고가 나온 이후 검토 과정이나 1783년 直齋藏內閣에서 등사할 때까지 교정에 협조하는 등,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인물들은 李寅燮, 李元陽, 權巖, 申景濬, 鄭志儉, 黃德吉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참여한 사람은 星湖를 중심으로 尹東奎, 李秉休과 하겠다. 역시 『星湖集』과 『順菴集』의 서한문에 잘 나타나 있다. 順菴을 포함한 이들 네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술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이들의 서신 교환은 초고 집필기인 1756~59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다.⁴⁵⁾

그런데 尹東奎와 李秉休은 각기 특유의 해박한 지식을 지녔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내용도 약간 다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邵南 尹東奎(1695~1773)는 經史에 능하고 象緯, 地理, 曆法에도 밝은 星湖門人이다. 『四水辨』을 저술하고 順菴과 함께 『李子粹語』 편찬에도 참여한 星湖門人 중에는 가장 연장자이다.⁴⁶⁾

順菴이 尹東奎와 처음으로 교유를 시작한 것은 1747년⁴⁷⁾이었다. 그후 兩

李秉休가 禮學에 명석하였던 것도 소개하였다. 그러나 孟休은 1751년 早世하였기 때문에 많은 교유는 하지 못하였다.

45) 『星湖集』과 『順菴集』에 수록되어 있는 서한에 따르면 順菴과 尹東奎는 35회 李秉休와는 21회의 편지가 오갔다. 그 중 역사에 관한 문답은 『東史綱目』 초고 집필기인 1756~59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46) 『順菴集』 26, 行狀, 邵南先生尹公行狀 乙巳.

人은 빈번하게 접촉을 갖게 되었는데 나이가 順菴보다 17년이나 위이기 때문에 스승처럼 받들고 그의 학문을 존중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禮論, 四端七情論을 비롯하여 歷史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였는데 順菴이 『東史綱目』 집필을 결심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星湖도 『東史綱目』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尹東奎와 협의를 가질 정도로 그의 역사에 대한 식견을 높이 사고 있었다.⁴⁷⁾

尹東奎는 星湖 다음으로 順菴의 『東史綱目』 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754년 順菴이 『東史綱目』 저술 의도를 밝히기까지는 그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컸던 것이다. 즉, 그가 綱目體歷史 서술에 어느정도 익숙하게 된 것은 그의 가르침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順菴이 尹東奎를 알게 된 뒤부터 역사에 관한 토론을 자주 갖게 되었고 특히 綱目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⁴⁸⁾

1747년 洪範 13조에 관한 順菴의 첫 질의로부터 시작하여 역사 문답이 계속되었다.⁴⁹⁾ 順菴은 실제 1754년 이전에는 星湖보다도 尹東奎로부터 綱目에 관한 논의를 더 많이 가졌다. 星湖가 尹東奎의 역사에 대한 식견을 믿고 그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⁵⁰⁾ 그러니까, 星湖는 順菴이 아직 綱目體에 익숙치 못했던 1750년 전후에는 門人 尹東奎에게 맡겨 필법을 익숙토록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때만하여도 順菴으로서는 綱目體에 대한 지식이 약했기 때문에 깊이있는 내용보다는 의심나는 전반적인 문제에 질의 응답 형식으로 관심을 보였던 때였다.

당시 尹東奎는 仁川에 거주하여 安山의 星湖를 자주 방문하였고 順菴은

47) 『星湖續集』 8, 書, 答尹幼章, 己卯.

48) 『順菴集』 3, 書, 與邵南尹丈東奎書, 丁卯. 同上, 答邵南尹丈書, 己巳.

同上, 與邵南尹丈書, 癸酉 등

49) 同上, 丁卯

50) 星湖는 末年에 尹東奎에게 많은 일을 의뢰하고 門人의 협조를 당부하였던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李子粹語』 편찬시에도 그는 尹東奎와 安鼎福에게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였다. (『星湖續集』 7, 書, 答尹幼章 등 연도 미상인 여러 편지에 잘 나타난다).

廣州에 살았기 때문에 星湖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서신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星湖가 거주한 安山이 중심지가 되어, 星湖가 兩人間의 중재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⁵¹⁾

그후 1754년 『東史綱目』 집필 의사를 밝히고 초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順菴은 尹東奎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게 되었다. 즉,

C-③ 東史雖有數種 而編年全無義例 正史亦甚疎忽 古今來 無一人言及者 若止此而已 則後人亦必曰 其義當然吾東方數千百年事蹟 只爲後世取笑之資耳 稍有隙見 而亦不敢自是欲求正於先輩 而又無其人竊想 先生春秋既高 賤疾亦難久 支徒含糊抱疑 不一贊於有道 而如有不可知者 則其爲抱恨當如何耶 是以一二仰稟於丈席 而丈席亦不廳斥之 若使此義得存 則庶乎其可矣 豈敢以著書自任 而不量其力哉 遊藝適情之教 謹當佩服而不失之矣 (『順菴集』 3, 書, 答邵南尹大書 丙子)

라 하여, 順菴은 『東史綱目』 저술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力不足이라는 것을 밝히고 尹東奎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었다. 順菴은 星湖가 이미 고령과 병약하였기 때문에 門人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邵南에 대한 順菴의 의존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

초고를 집필하는 동안, 順菴은 綱目 義例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地理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았다.⁵²⁾ 그는 스스로 고증한 地理沿革을 尹東奎에게 보여 자문을 받기도 하고 알 수 없거나 의문이 나는 것은 서한으로 조언을 구하였다. 三韓正統論, 漢水以北의 古代國家疆域, 그리고 山, 江의 연혁에 대한 것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順菴의 地理考證은 이에 해박한 尹東奎의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尹東奎도 저술 전반에 걸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李秉休와 더불어 실질적인 星湖門中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星湖는 順菴이 병고

51) 星湖가 順菴에게 보내는 서한에는 尹東奎의 거동에 대한 소식을 자주 주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52) 『順菴集』 10, 書, 東史問答, 丙子 및 己卯. 同上 3, 書, 答邵南尹丈書, 丙子

에 시달리면서도 저술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門人들에게 협조하기를 당부하였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759년 『東史綱目』 초고가 완성되어 星湖에게 보내졌을 때에도 星湖는 먼저 尹東奎와 저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그를 신임하는 바가 두터웠던 것이다.⁵³⁾

1763년 星湖가 別世한 후 尹東奎는 星湖를 대신하여 『東史綱目』의 재고 과정에 더욱 정열을 쏟게 되었다. 이 때 그는 門人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星湖의 뜻을 이어 『東史綱目』의 완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는 末年까지 纂紘와 節義에 대한 문제를 놓고 順菴과 논의를 거듭하였다.⁵⁴⁾ 그러나 그도 星湖死後 10년 뒤 他界하고 말았다.

한편 貞山 李秉休(景協)는 星湖의 조카이면서 弟子門人으로 일찍부터 星湖결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星湖의 학문을 가장 깊게 전수받은 인물이다.⁵⁵⁾ 그는 禮論과 陰陽學에 해박하였다. 順菴도 그에 대해,

C-④ (上略) 其剛毅之姿 蔚粟之文 精博之學 勤篤之工 世有幾人乎 雖以年紀之相等友之 而實則我師也 (『順菴集』 19, 題貞山藁後 丙申)

라 하였듯이, 성품이 강직하고 학문이 박식하여 나이가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스승처럼 존경한다고 술회한 바 있다.

星湖를 첫 방문한 때부터 順菴은 李秉休와 학문을 토론하였다. 李秉休도 順菴이 『東史綱目』을 완성할 때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⁵⁶⁾ 順菴은 저술 초기부터 그와 筆法 전반에 걸쳐 토론을 벌였는데 正統論, 節義에 관련된 문제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었다.⁵⁷⁾

53) 『星湖續集』 8, 書, 答幼章, 己卯, 「百順東史 略見之 用力可責 但不能囁于聖經(下略)」

54) 『順菴集』 3, 書答邵南尹丈別紙, 辛卯

55) 星湖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의 仲兄(貞山의 父) [潛 謫에서 성장하였다. 1706년 仲兄마저 역적으로 몰려 죽자 李秉休는 星湖아래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韓治勛, 『星湖李瀾研究』, (서울대 출판부, 1987) pp. 11~13)

56) 사료 C-⑤ 참조

李秉休에 대한 順菴의 기대 또한 적지 않았다. 1758년 順菴이 李秉休에게 쓴 서한에,

C-⑤ 東史非敢擔當 丈席有教 故不量己力 率爾爲之(下略)(同上, 10, 書, 東史問答, 與貞山書, 戊寅)

라 있듯이, 『東史綱目』의 집필이 李秉休의 가르침으로 진행되고 있다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미력하다고 토로한 사실로 보아도 順菴이 그에 의지한바가 매우 컸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도 節義에 관련된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李秉休가 비교적 이에 박식하였기 때문이다.

李秉休가 順菴의 집필에 더욱 기여한 것은 여러 文獻의 제공이라 하겠다. 당시 順菴은 문헌 수집에 큰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1756년까지도 『三國史記』를 보지 못했을 정도였다.⁵⁸⁾ 때문에 順菴은 그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우기 星湖가 별세한 후 星湖의 소장 문헌은 李秉休가 맡아 정리하였기 때문에 順菴은 거의 그의 도움으로 많은 문헌을 빌려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여러 門人의 도움으로 『東史綱目』의 재고도 거의 끝을 맺을 무렵, 順菴은 李秉休에게 表題文을 부탁하였다.⁶⁰⁾ 秉休는 이에 응하여 이듬해인 1774년 기꺼이 써 주기도 하였다.⁶¹⁾ 이처럼 李秉休는 順菴이 『東史綱目』을 집필·검토하는 동안 자문에 응하는 것은 물론 자료 제공도 아끼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尹東奎와 李秉休는 星湖와 함께 『東史綱目』 저술에 적지않게 기여한 인물들이다. 무엇보다도 尹東奎의 地理, 李秉休의 節義에 대한

57) 註 52) 참조.

58) 同上, 「三國史 未及得見 以其見於他書者見之 疎漏甚矣」

59) 『順菴集』 4, 書, 答李景協書, 癸巳, 「(上略) 吾東文獻之傳 不出於尊兄門內 其於樸實做工」

60) 同上, 與李景協書, 癸巳, 「(上略) 欲編於東史首張 而文非序體 敢請老兄 爲數行 小跋于下 發揮先生本意至望」.

61) 『東史綱目』, 題東史篇面「甲午五月 天中日 從子秉休敬書」

조언은 順菴의 집필에 큰 도움을 준 부분이라 하겠다. 『東史綱目』이 節義와 地理가 크게 강조된 史書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들의 공헌은 평가받을 만 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 이외에 星湖門人의 참여는 어떠하였던가. 주로 少壯人物의 협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順菴이 李元陽에게 보낸 서한에,

C-⑥ 東史僅完 而病中思慮不起 不能盡意整釐 時時拔抽點檢 則間有不滿意處 蒙足下輩隨事指摘 即成完書 何幸(『覆瓿稿』 3, 與李元陽, 庚辰(1760))⁶²⁾

이라 있듯이, 초고를 마친 후 수정·정리하던 중 後學들의 도움으로 책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초고의 검토 과정에서 順菴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順菴은 초고의 집필 과정에서는 거의 星湖, 尹東奎, 李秉休의 의견을 받아 들인 반면, 검토 과정에서는 同門後學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元陽과 李寅燮(士賓)등이 그 과정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李寅燮은 그의 祖父때부터 順菴의 가문과 교유가 있었기 때문에 順菴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⁶³⁾ 順菴은 그에게 많은 자문을 구한 것 같다. 이를테면, 順菴이 그에게,

C-⑦ 東史見教精切 深以爲幸 …(中略) 所來東史述 欲付送以求前日條論 而非僞便 故不能遂意 摘去諸條 願教示之也 考異留置何防 自以爲比最辨別 得盡亦以該教焉 凡例則多用林氏說 而近來思之 多有改定者 其中可疑處 公亦從示率甚 地理考已成 而浪水說終有可疑 拘於比條 未出正 卒遽非久 當奉呈耳(同上, 答李士賓 辛巳(1761)).

라 하였듯이, 저술 전반에 걸쳐 그에게 검토를 부탁하였다. 「凡例」는 물

62) 이 사료는 精神文化研究院圖書館 필름자료로 國立中央圖書館 소장 필사본을 이용한 것이다.

63) 『順菴集』 5, 書, 與李士賓書, 戊子, 「公文先代掌令公 即我先祖翼憲公之孫也」

론이고 「考異」, 「地理考」의 고증 내용까지도 재고 대상으로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李寅燮의 견해도 크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⁶⁴⁾

그리고 權巖도 1756년 이래 順菴과 經史를 토론하면서 저술에 협조했던 인물이다.⁶⁵⁾ 그는 順菴이 『東史綱目』을 끝내고도 사저에 사장시키고 간행하지 못하자 함께 고민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⁶⁶⁾

한편 당대 歷史地理에 밝았던 旅菴 申景濬(1712~1781)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보기 어려우나 그가 李家煥에게 보내는 서한중에,

C-⑥ (上略) 備考中地理考 亡友申承宜 彛民所編 大有力量 詳細考入亦如何(下略) (『順菴集』 7, 書, 與李廷藻家煥書, 己酉)

라 있듯이, 『東國文獻備考』의 地理考를 쓴 彛民 申景濬이 친구지간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兩人間에는 생전에 地理에 관한 토론이 없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澈齋 鄭志儉(1737~1784)은 順菴의 門人으로 1783년에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뒤 『東史綱目』의 간행에 힘쓴 인물이다. 1783년 등사전에 최종적인 교정을 맡아 보았고 經筵에 『東史綱目』을 사용하도록 上奏하는 등 『東史綱目』이 햇빛을 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⁶⁷⁾

64) 기타 順菴이 『東史綱目』에 대하여 李寅燮과 의견을 나눈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사료가 있다.

『覆瓿稿』 3, 與李士賓, 辛巳, p. 86

同上, 答李士賓, 辛巳, p. 87

同上, 答李士賓, 辛巳, p. 98

65) 『順菴集』 20, 祭文, 祭權尸菴巖文, 庚子

66) 同上 5, 書, 與尸菴權孟容巖書, 丙申

67) 同上 9, 書, 答鄭子尙書, 辛丑

「(上略) 不合進覽於至尊之前 徒切惶悚 此書但爲私家考實之實而已 豈意兄至於筵奏 恩言及於不忘之諭 塵芒小臣有可取而然耶 今於年久之後 猶記簪履舊物 聖恩罔泯 圖報無所奈何奈何……(中略) 今者此書 上意雖不以爲罪 安知復無此事乎 書二匣 凡二十冊 考納焉」

이 밖에도 다수의 順菴門人들이 재고와 교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V. 맺음말

지금까지 『東史綱目』 저술 배경을 알아 보는 한 방법으로 近畿南人 星湖學派의 참여에 대해 살펴 보았다. 살펴 본 것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東史綱目』은 星湖의 권고에 따라 順菴이 집필하였다. 星湖는 『東國通鑑』, 『麗史提綱』과 같은 종래 우리 나라 史書에 나타나는 成敗論的 敘述에 크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는 곧 西人의 역사 서술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節義를 大義名分으로 하는 南人의 새로운 역사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東史綱目』이 등장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星湖는 이 大業을 맡을 수 있는 적격자를 찾던 중 그의 門人인 順菴에게 권고하였고, 수년동안 綱目筆法을 공부한 順菴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집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順菴은 『東史綱目』 저술의 기본 방향을 星湖로부터 제시받았는데 凡例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正統, 節義, 地理, 기타 筆法은 곧 星湖의 견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星湖는 비록 집필의 책임을 順菴에게 일임하였으나 그의 門人들을 동원하여 저술을 돕도록 하였다. 그 중에도 尹東奎와 李秉休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저술 전반에 걸쳐 順菴의 자문에 응하고 문헌 제공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尹東奎는 地理考證에, 李秉休는 節義評價 등으로 順菴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당시 近畿南人의 中心人物인 이들이 『東史綱目』 저술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더욱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68) 黃德吉, 李商駿, 洪錫胤, 丁志永, 尹愼, 鄭時復, 崔鴻晉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草稿가 완료된 후 재검토와 간행을 위한 교정 과정에서 門人들의 협조 또한 적지 않았다. 이는 『東史綱目』이 그들 南人을 대변하는 역사서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星湖, 尹東奎, 李乘休로 이어지는 近畿南人の 중심 인물이 『東史綱目』 저술에 모두 참여하고 門人들이 협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東史綱目』은 南人の 역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역사서로 보아 좋을 것이다. 즉, 18세기 南人の 역사 인식은 『東史綱目』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겠다.

『東史綱目』은 곧 정부에까지 알려져 1883년 등사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門人들은 이 책을 필독 도서처럼 읽게 되었다. 더불어 이 책으로 順菴은 南人史學의 1인자요 그 대변자가 되었다. 더우기 星湖, 邵南, 貞山이 잇달아 他界하자⁶⁹⁾ 近畿南人の 최고 인물이 되어 門人을 이끌게 되었다⁷⁰⁾

한편, 歷史學에 대한 명성으로 그는 1770년 洪名漢이 부탁한 『東國文獻備考』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 필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기도 하였다.⁷¹⁾ 그리고 洪汝河의 玄孫인 洪錫胤이 『彙纂麗史』의 간행을 위해 교정을 의뢰하였을 때 역시 기꺼이 받아들였으며,⁷²⁾ 1786년에는 『東國通鑑提綱』의 서문까지 써주었다.⁷³⁾ 이 또한 17세기 南人 역사 서술에 대한 그의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69) 星湖는 1763년, 邵南은 1773년, 貞山은 1776년에 他界하였다.

70) 『順菴集』, 祭文, 朴處順, 「自星湖邵南以後 惟先生巋然矣」

71) 同上 5, 與洪參判書, 庚寅.

72) 同上 9, 與洪生錫胤書, 甲辰 및 戊申

73) 『東國通鑑提綱』序文 참조.